

numbers 제 66호



주요 내용

2020. 10.09

1. 이번 주 주제 : [교회 공동체성 분석 :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비교 조사]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2.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확진자수가 증가하면서 한국 교회는 불확실성이라는 패닉에 빠졌다. 일반국민들도 주요 사회적 주체 중 개신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개신교의 피해가 크다. 옆친데 뉘친격으로 방역 관련 개신교 일부 교회의 일탈과 정치적 행동으로 개신교의 대국민 신뢰도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대면 예배 속에 지금도 한국 교회는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여러 목회자들과 미팅하며 교회 상황을 듣다 보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이 줄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특별한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공동체성’이다. ‘아! 이런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반교회 성도와 공동체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가정교회’ 성도들이 각각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는지 비교하면 한국 교회에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연구하고 준비했다. 조사 결과, 가정교회는 비대면 시대에서도 소그룹 활동이 일반교회보다 월등하게 활발했고, 따라서 그들의 신앙 생활, 헌금 생활도 일반교회 성도보다 더 역동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 66호는 일반교회와 가정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비교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희망을 발견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공동체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정교회 성도와 일반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두 집단 간 어떤 특징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 조사하여 한국 교회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기획하였다.

조사 개요

- 1) 조사 대상 :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교회 및 가정교회 출석 교인 각각 500명 씩, 총 1,000명
- 2) 조사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3) 조사 방법
 - 일반교회 :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 가정교회 : 모바일 조사(휴대폰 문자를 통해 url 발송)
(가정교회를 실시하는 국제가정교회사역원 소속 교회와 나들목네트워크 소속 교회의 협조를 얻음)
 - 조사 기간 : 2020년 8월 20일-31일
 - 조사 진행 : (주)지앤컴리서치
 - 조사 결과 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 가정교회의 정의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을 수행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교회 형태를 취한 교회를 일컫는다. 일반교회는 교회가 기본 단위이고 교회를 돕기 위한 하부 단위가 구역과 같은 소그룹이라면, 가정교회는 소그룹이 기본 단위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개념이다.

가정교회 리더(목자)는 목회자와 같은 사명감으로 자기 가정에 모이는 소그룹(목장)을 목양하고 각 구성원은 작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식으로 소그룹원으로서 기능한다. 일반교회가 1년 52주 예배를 쉬지 않듯이 가정교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방학 없이 쉬지 않고 모여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소그룹에서 수행한다.

(가정교회를 자세히 알려면 '국제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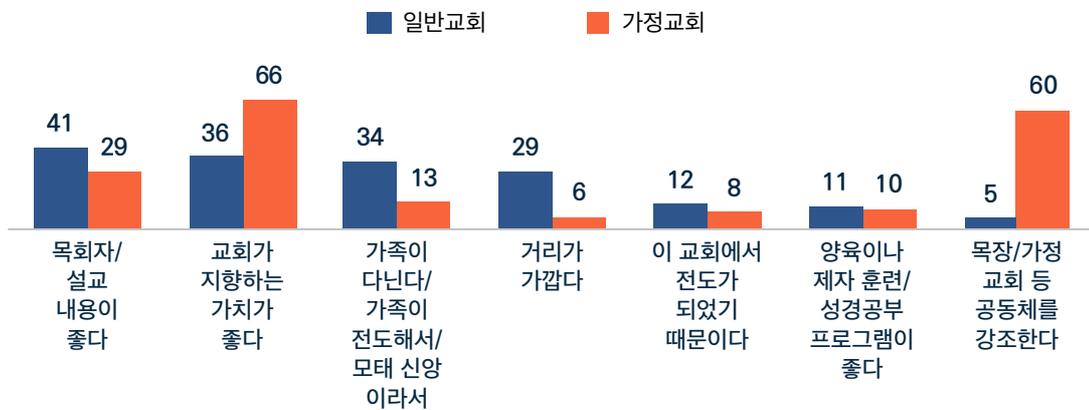


교회 출석 이유

일반교회는 ‘목회자’, 가정교회는 ‘공동체’와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

- 현재 출석하는 교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일반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설교 내용이 좋다’가 41%로 가장 높았고,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다’(36%)와 ‘가족이 다닌다’(34%), ‘거리가 가깝다’(29%)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반면 가정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다’ 66%, ‘목장/가정교회 등 공동체를 강조한다’ 60% 등 공동체와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교회 선택 이유로 높게 나타나, 일반교회 성도의 교회 선택 이유와 큰 차이를 보임

[그림] 출석 교회 선택 이유(1+2 순위,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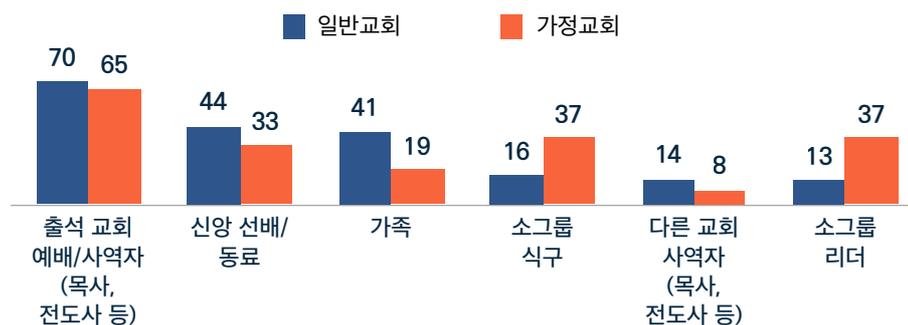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

가정교회가 일반교회 대비 ‘소그룹 리더/식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신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교회 성도는 ‘출석 교회 예배/사역자(목사, 전도사 등)’ 70%, ‘신앙 선배/동료’ 44%, ‘가족’ 41% 등의 순으로 꼽은 반면, 가정교회 성도는 ‘출석 교회 예배/사역자’(65%)가 가장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소그룹 식구’, ‘소그룹 리더’가 각각 37%로 일반교회보다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가정교회는 가족의 개념을 소그룹으로 확장하여 교회 내에서 관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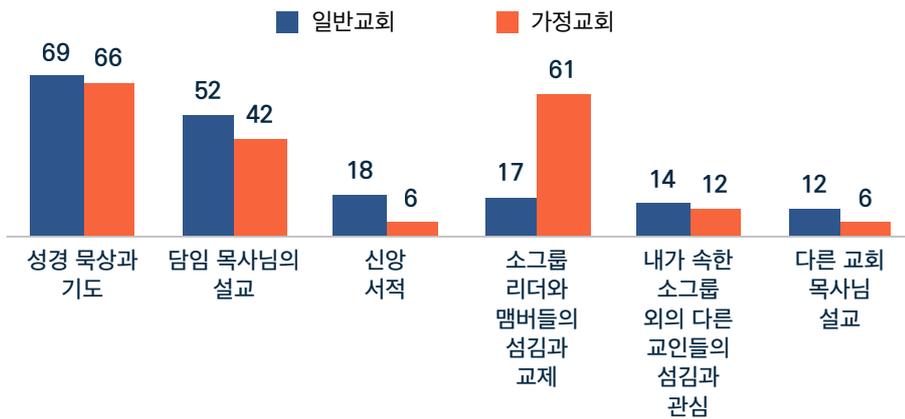
[그림] 나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1+2순위,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받는 것, 가정교회가 일반교회 대비 소그룹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 유지에 도움 받는 것으로, 일반교회 성도는 '성경 묵상과 기도' 69%, '담임 목사 설교' 52%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가정교회 성도는 일반교회와 마찬가지로 '성경 묵상과 기도'가 66%로 높았지만,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가 61%로 일반교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소그룹'이 개인 신앙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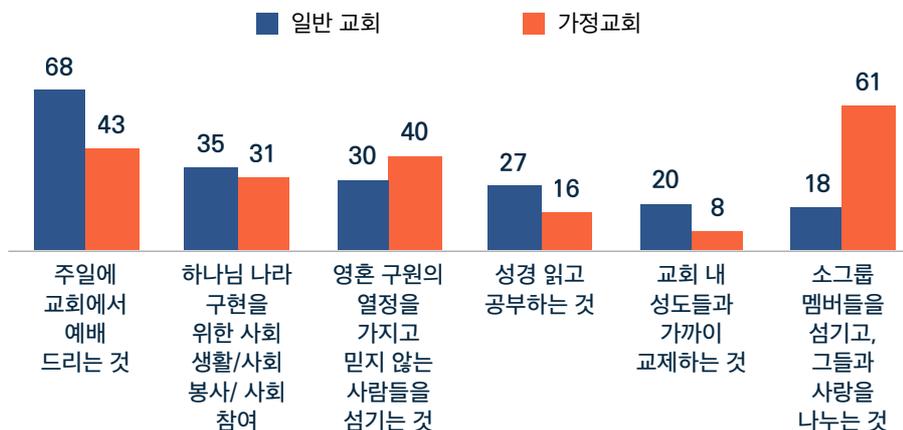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을 받는 것(1+2 순위,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일반교회 '주일 교회 예배', 가정교회 '소그룹 섬김과 사랑 나눔'

-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에 대해 일반교회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68%,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사회 생활/사회 봉사/사회 참여' 35%,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 27% 순으로 응답함
- 반면 가정교회 성도는 '소그룹 멤버들을 섬기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61%로 가장 높았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43%,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4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그룹 관계 맺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1+2 순위,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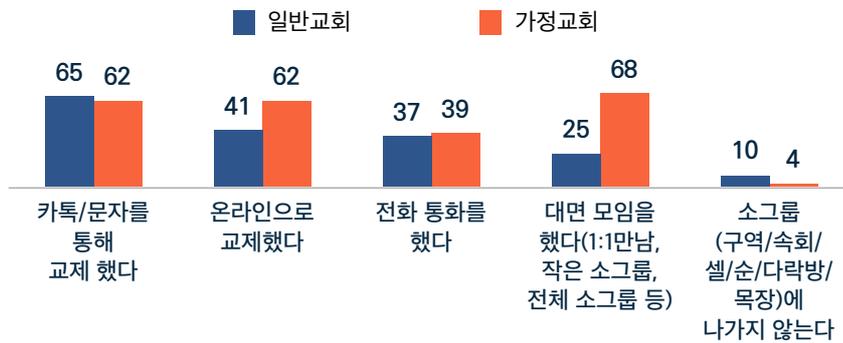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그룹 교제

일반교회 '카톡/문자' 중심, 가정교회 '대면 모임' 중심

-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도 간 교제를 어떻게 했는지는 물어보았는데, 일반교회는 '카톡/문자 교제' 65%, '온라인 교제' 41%, '전화 통화' 3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교회는 '대면 모임'(68%)을 가장 높게 응답하여 소그룹 교제에 있어 비대면 사회 문화 속에서도 '대면 모임' 방식을 일반교회보다 훨씬 더 가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정교회는 온라인, 메시지, 전화 등의 다양한 교제 형태의 응답률에 있어서 일반교회보다 높게 나타나 성도 간 관계 맺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그룹 교제 방식(중복 응답,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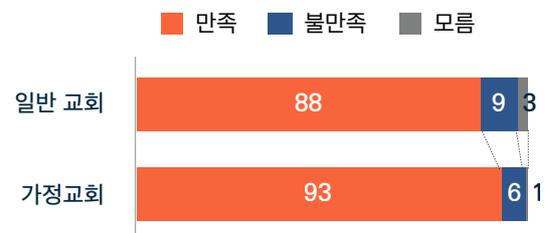
소그룹 만족도가 높은 교회가 전체 만족도도 높아!

- 교회의 소그룹 만족도를 질문하였는데, '일반교회 성도' 86%, '가정교회 성도' 94%로 나타나, '가정교회 성도'가 '일반교회 성도'보다 소그룹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석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일반교회 성도' 88%, '가정교회 성도' 93%로 '가정교회 성도'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그룹 만족도가 높은 가정교회가 교회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교회 내 소그룹 만족도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그림] 출석 교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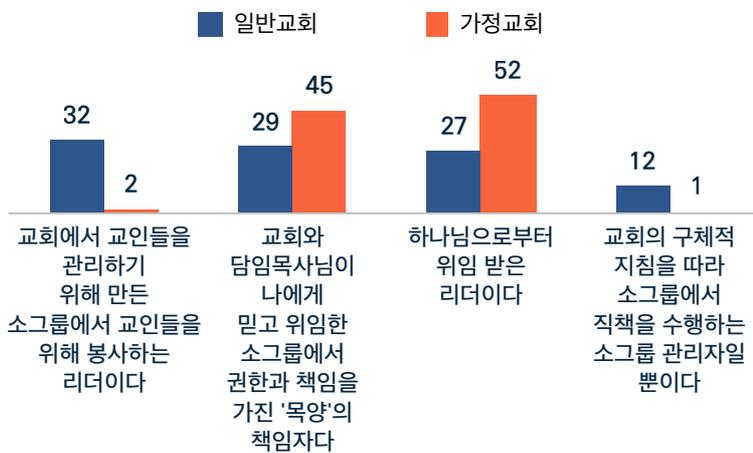
4



소그룹 리더의 자기 인식, 일반교회 '교인을 위한 봉사 직분', 가정교회 '하나님께 위임 받은 리더'

- 소그룹 리더(구역장, 속장, 셀리더, 순장, 목자, 리더 등)에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질문했는데, 일반교회 소그룹 리더는 '교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리더이다'(32%)를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가정교회 소그룹 리더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리더이다' 52%로 응답해, 두 그룹 간 리더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남
- 소그룹 리더의 자기 인식은 소그룹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두 그룹 간 책임감, 사명감에 있어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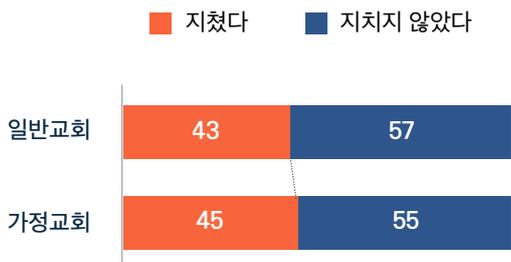
[그림] 소그룹 리더의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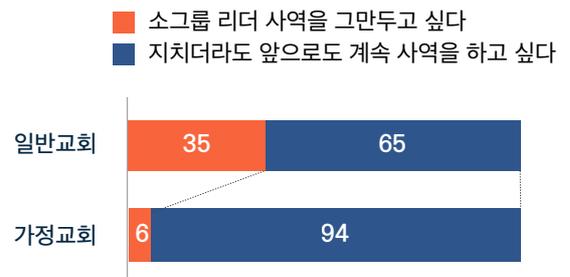
● “소그룹 리더 사역 그만 두고 싶다”, 일반교회 리더 35%, 가정교회 리더 6%

- 소그룹 리더로서 본인의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절반 가까이 '지쳤다'고 응답하였는데('일반교회 리더' 43%, '가정교회 리더' 45%), 두 그룹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하지만 향후 소그룹 리더 사역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그만 두고 싶다'는 응답이 '일반교회 리더' 35%, '가정교회 리더' 6%로 나타나 두 그룹 간 큰 차이를 보임

[그림] 소그룹 리더로서 현재 상태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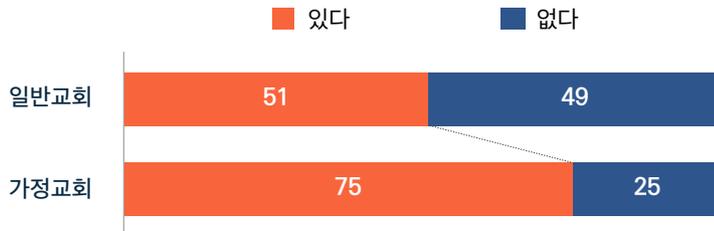
[그림] 소그룹 리더 사역 계속 의향 (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 소그룹 구성원의 향후 소그룹 리더 되고 싶은 의향, 일반교회 51%, 가정교회 75%

- 소그룹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 향후 리더 봉사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일반교회 51%, 가정교회 75%가 '향후 소그룹 리더로 봉사하고 싶다'고 응답해 가정교회가 향후 소그룹 활동 섬김에 동기 부여가 상대적으로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소그룹 구성원의 향후 리더 봉사 의향(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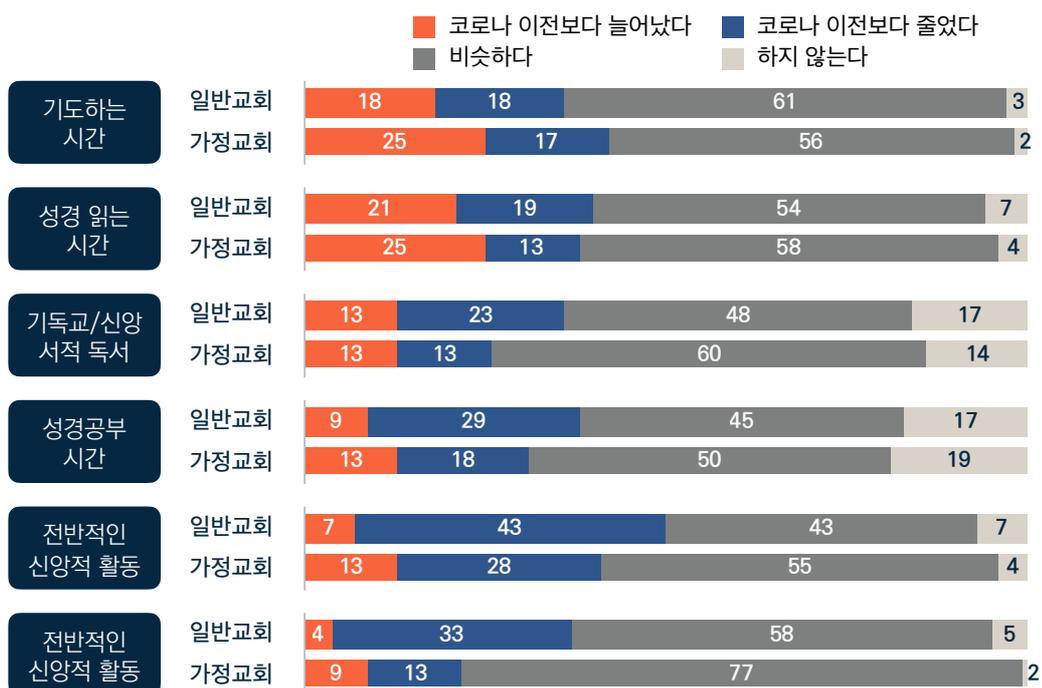
5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경건 생활, 가정교회 성도가 일반교회 성도보다 더 활발해!

- 코로나19 이후 경건 생활에 대해 알아보려고 6개 항목을 제시 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였는데, 가정교회는 기도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 25%인 반면, 일반교회는 '늘었다' 18%로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임
- 또한 '성경 읽는 시간', '기독교/신앙 서적 독서', '성경공부 시간' 등도 가정교회가 일반교회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거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회 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경우 순 증가('늘었다'-'줄었다') 비율이 일반교회가 -36%였는데 가정교회는 -15%로 감소 폭이 훨씬 적어 가정교회가 일반교회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의 개인 경건 생활의 변화(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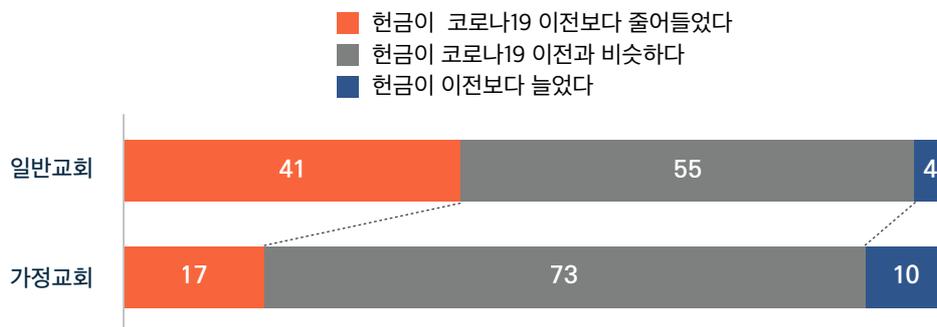
6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헌금 생활, 가정교회가 일반교회보다 헌금 감소 타격을 덜 받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헌금 생활은 일반교회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었다' 41%, '늘었다' 4%로 응답해 코로나19 이후 교회 헌금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가정교회는 '줄었다' 17%, '늘었다' 10%, '비슷하다' 73%로 응답해 코로나19 이후 교회 헌금의 변화 폭이 일반교회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헌금 생활(일반교회 vs 가정교회) (%)





시사점

헬라어 에클레시아(ecclesia)는 원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말로써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초대교회가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의미로 빌려 쓴 것은 그들이 교회를 '공동체'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같은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공동체로 여겼다. 신앙 위에서 서로 간에 차별없는 관계, 동등한 교제를 하며, 필요한 것을 서로 공급하고 채워주는 공동체였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듯하다.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가 온 것 같지만, 사실 비대면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스마트폰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인터넷 쇼핑 등으로 개인의 삶은 고립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서로 간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같은 교인끼리라도 비대면 문화 속에서 얼굴을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약해지게 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회복할 것이 대면 예배만은 아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능적 조직 혹은 건물은 아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에서 완강하게 거부한 것이다. 초대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아닌 공동체로서 교회를 지향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교회 유형 중 공동체성이 강한 대표적인 유형의 교회가 가정교회이다(3쪽. 가정교회 정의 참조).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소그룹 리더에게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구역과 같은 소그룹이 교회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는 일반교회와는 다른 구조이다.

가정교회 소그룹은 강한 공동체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소그룹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친밀성을 넘어 관심과 격려 그리고 섬김과 돌봄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정교회의 소그룹 교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력있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6쪽). 이렇게 강한 공동체성으로 인해 가정교회 소그룹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소그룹 만족도는 교회 만족도를 높여준다.

가정교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헌신된 소그룹 리더이다. 가정교회 소그룹 리더는 자신을 조직의 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리더로 인식한다(7쪽). 목회자와 같은 역할로 자기 역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정교회 소그룹 리더는 헌신적이다. 그들은 맡겨진 역할이 힘들어도 목양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이 강하다. 일반 교회 소그룹 리더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비율이 35%까지 나타난 반면(7쪽), 가정교회 소그룹 리더는 그만두고 싶은 비율이 거의 없는(6%)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비대면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남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코로나 종식 후 공동체성 회복이 한국교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될텐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교회와 다른 가정교회 특징들, 즉 소그룹 활동, 소그룹 구성원의 인식, 가족 개념의 확장, 소그룹 리더의 헌신 등 소그룹 중심의 교회 사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헤쳐나갈 돌파구가 있다면 우리 연구소는 그 중 하나가 "소그룹"이라 판단했다. 교회들마다 소그룹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새로운 사역 전략 수립을 권고하고 싶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스트레스’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단어가 된 것 같다. 우리는 대부분 건강상태 이상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지목하고, 정확한 이유를 모를 때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최근 1개월 동안 뉴스 및 SNS 등 온라인/모바일 상에서 언급된 ‘스트레스’ 횟수는 무려 45만 번에 이른다. 매일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뉴스 기사 1,400여 개가 쏟아지고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에서도 하루 15,000회 가까이 ‘스트레스’가 언급되고 있다.

다음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현재 고민거리,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해소 방법 등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이다(Source : DAUM SOME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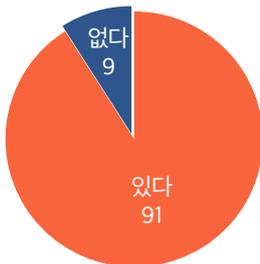
1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조사 전문 기관인 톨리언프로가 전국의 만20~59세까지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고민거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91%가 ‘있다’고 응답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현재 고민거리 여부 (%)



*자료 출처 : 톨리언프로, ‘2020년 대한민국 2059세 남녀의 스트레스&고민거리’, 2020.09.04 (전국 20~59세 남녀 850명, 웹/모바일조사, 2020.08.24.)

● 한국인의 현재 고민거리 1위 : ‘경제적 문제’

- 현재 스트레스를 주는 고민거리로 ‘경제적 문제’가 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후 준비’ 27%, ‘건강’ 26% 등의 순으로 응답함
-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이슈(정치/환경 문제등)’에 대해 고민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4명 중 1명 정도(24%)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취업/이직’(31%), 30대는 ‘경제적 문제’(31%), 40대는 ‘건강’(31%), 50대는 ‘노후 준비’(46%)를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현재 고민거리 (중복 응답, 상위 7위) (%)



[그림] 연령별 고민거리 1위



*자료 출처 : 톨리언프로, ‘2020년 대한민국 2059세 남녀의 스트레스&고민거리’, 2020.09.04 (전국 20~59세 남녀 850명, 웹/모바일조사, 2020.0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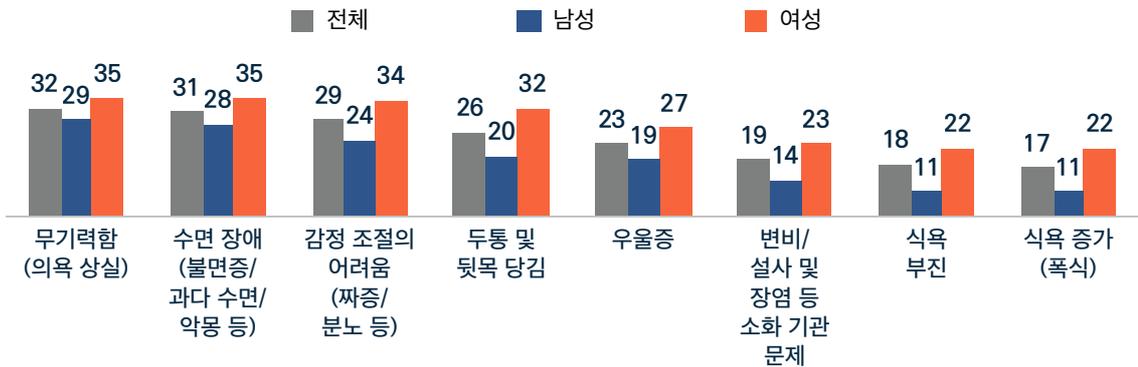
2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한 증상, '무기력함', '수면 장애', '짜증/분노 등의 감정 조절 어려움'

-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한 증상으로는 '무기력함'(의욕 상실) 32%, '수면 장애' 31%, '짜증/분노 등 감정 조절의 어려움' 29%, '두통 및 뒷목 당김' 26%, '우울증' 23%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성별로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증상 경험률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두통 증상, 식욕 부족 또는 증가 등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음

[그림]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한 증상(중복 응답, 상위 8위,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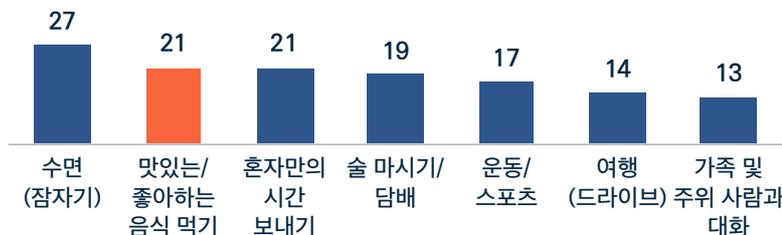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톨리언프로, '2020년 대한민국 2059세 남녀의 스트레스&고민거리', 2020.09.04 (전국 20-59세 남녀 850명, 웹/모바일조사, 2020.08.24.)

● 스트레스 해소 방법 1위, '수면'

-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 본 결과, '수면(잠자기)'을 27%로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맛있는 음식 먹기'와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 21%, '술 마시기/담배' 19%, '운동/스포츠' 17%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이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대인 관계를 통해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대체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스트레스 해소 방법(1~3순위 합계, 상위 7위) (%)



*자료 출처 : 톨리언프로, '2020년 대한민국 2059세 남녀의 스트레스&고민거리', 2020.09.04 (전국 20-59세 남녀 850명, 웹/모바일조사, 2020.08.2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코
로
나
1
9

[코로나 직격탄, 더 아픈 20대...실업 → 파산 → 우울증 '악순환'](#)
경향신문_2020.10.07.
- [코로나의 역설... "감기가 사라졌다"](#)
매일경제_2020.10.06.
- [코로나 · 장마 겹치며 8월 온라인 거래 14.4조원...사상 최대](#)
연합뉴스_2020.10.05.
- 사
회

일
반

[월세·전기료·수도료 못 내는 코로나 위기가구 대다수 '긴급 복지 사각'](#)
경향신문_2020.10.05.
-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탈코로나, 탈석탄이 답이다](#)
이투데이_2020.10.06.
- [인기 유튜버들 年수익 1억 넘어 '직장인의 3배'](#)
동아일보_2020.10.07.
- [유튜브·SNS 파고든 악플러들](#)
한국일보_2020.10.07.
- [대학생·취준생 55% "하반기 취업 글렀어요"](#)
매일경제_2020.10.04.
- ["20대 '빚투' 우려할 상황"...4월이후 신용융자 2천700억원 ↑](#)
연합뉴스_2020.10.07.
- 큐
레
이
션

[어느 신학자가 본 능력위주사회의 위험](#)
중앙일보_2020.10.08.
- [민주주의 진척 기제로서 공론화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한국일보_2020.10.06.
- [코로나 이후 미국 사회, 양극화 심화](#)
조선일보_2020.10.07.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65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과천제일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